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백혜선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타악기 합주 음악치료가
결손가정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2017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김지현

타악기 합주 음악치료가
결손가정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백 혜 선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김 지 현

인 준 서

김지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6년 11월

심사위원장(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서명 또는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타악기 합주 음악치료가 결손가정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은 서울시 G구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결손가정 아동 14명으로, 실험집단 7명과 통제집단 7명으로 구분하여 무선배치되었다.

타악기 합주 음악치료 활동은 2016년 8월 22일부터 10월 5일까지, 회기당 60분씩, 주 2회, 총 12회기로 진행되었으며 타악기 즉흥연주, 드럼서클, 난타, 리듬밴드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타악기 합주 음악치료 활동안을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음악치료 활동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자기효능감 척도와 또래관계 질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를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결과를 분석하였고 빈도 분석, Mann-Whitney U 검정, 순위 공변량분석(Ranked ANCOVA), Wilcoxon 대응 쌍 부호순위(Wilcoxon Matched Pairs)검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통제집단은 자기효능감과 또래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p > .05$), 실험집단은 자기효능감($F(1, 12)=17.54, p < .01$)과 또래관계 질($F(1, 12)=24.20, p < .001$)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험집단의 자기효능감과 또래관계는 사전점수에 비해 사후점수가 증가하여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타악기 합주 음악치료가 결손가정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또래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치료적 중재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5
II. 이론적 배경	6
1. 결손가정 아동	6
1) 결손가정의 개념 및 실태	6
2) 결손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특성	8
2. 결손가정 아동의 자기효능감 및 또래관계	10
1) 결손가정 아동의 자기효능감	10
2) 결손가정 아동의 또래관계	11
3. 결손가정 아동을 위한 타악기 합주 음악치료	13
1) 타악기 합주의 개념 및 특성	13
2) 타악기 합주의 치료적 접근	14
3) 결손가정 아동을 위한 타악기 합주 음악치료	17
III. 연구방법	19
1. 연구대상	19
2. 측정도구	19
3. 연구설계 및 절차	21
4. 음악치료 활동안 구성	23

5. 자료분석	29
IV. 연구결과	31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동질성 검정	31
2. 자기효능감에 대한 음악치료 활동 효과	34
3. 또래관계 질에 대한 음악치료 활동 효과	39
V. 결론	44
1. 결론 및 논의	44
2. 제언	46

참고문헌

ABSTRACT(영문초록)

부 록

표 목 차

<표 III-1> 자기효능감 척도의 하위요인 및 신뢰도	20
<표 III-2> 또래관계 질 척도의 하위요인 및 신뢰도	21
<표 III-3> 연구 설계 모형	22
<표 III-4> 음악치료 활동안 한 회기 구성	22
<표 III-5> 회기별 타악기 합주 음악치료 활동안	26
<표 IV-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2
<표 IV-2> 다중응답	33
<표 IV-3>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동질성 분석	34
<표 IV-4> 자기효능감 전체점수 순위 잔차의 평균과 표준편차	34
<표 IV-5> 자기효능감에 대한 순위 공변량분석	35
<표 IV-6> 자기효능감에 대한 Wilcoxon 대응 쌍 부호순위 검정	35
<표 IV-7> 자기효능감 하위요인 순위 잔차의 평균과 표준편차	37
<표 IV-8> 자기효능감 하위요인에 대한 순위 공변량분석	37
<표 IV-9> 자기효능감 하위요인 Wilcoxon 대응 쌍 부호순위 검정	38
<표 IV-10> 또래관계 질 전체점수 순위 잔차의 평균과 표준편차	39
<표 IV-11> 또래관계 질에 대한 순위 공변량분석	40
<표 IV-12> 또래관계 질에 대한 Wilcoxon 대응 쌍 부호순위 검정	40
<표 IV-13> 또래관계 질 하위요인 순위 잔차의 평균과 표준편차	41
<표 IV-14> 또래관계 질 하위요인에 대한 순위 공변량분석	42
<표 IV-15> 또래관계 질 하위요인 Wilcoxon 대응 쌍 부호순위 검정	43

그림 목 차

<그림 IV-1> 자기효능감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평균점수	36
<그림 IV-2> 자신감	38
<그림 IV-3> 자기조절효능감	38
<그림 IV-4> 과제 난이도	39
<그림 IV-5> 또래관계 질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평균점수	41
<그림 IV-6> 긍정적 요인	43
<그림 IV-7> 부정적 요인	43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정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환경으로 가족의 공동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소일뿐 아니라 휴식과 안정을 느끼도록 하는 보금자리를 의미한다(김희성, 나용선, 김충식, 박경아, 곽미영, 2009). 아동은 가정이라는 작은 사회 안에서 구성원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며 건강한 인격을 형성해가고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자아개념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가정에서의 역할과 부모와의 관계는 아동의 발달에 있어 사회적, 지적, 성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정옥분, 2013).

급변하는 경제 성장으로 인한 산업화는 가정 구성원을 분리시키고 가정의 기능과 형태를 변화시켰다. 아동의 인격 형성과 사회성을 길러주는 가정의 형태가 아닌 개인의 역할만을 중시하는 기계적인 가족형태로 변화하고, 아동을 지지·보호 해주는 가정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어 결손가정을 야기하였다(조희금 외, 2005; 최애나, 강효현, 2007). 과거 결손가정의 원인은 부모의 사망이나 질병, 사고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산업화로 인한 가정의 변화는 가족 구성원 간의 대화단절, 세대 간의 소통 부재 등을 발생시켜 별거와 이혼이 늘어나 결손가정을 증가시켰다(조미숙, 2005). 통계청(2015)에 의하면 이혼가정의 가구 수는 2010년 125만에서 2015년 171만으로 증가하였고, 결손가정의 가구 수는 2010년 171만에서 2015년 194만 가구로, 가정의 기능 상실과 가족 해체로 인한 결손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결손가정 아동은 ‘부’ 또는 ‘모’가 없거나 둘 다 없으므로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을 기회가 적으며 제한된 환경에서 자라게 된다. 이는 일반가정에서 자란 아동에 비해 가족의 지지 및 보호가 부족하고 성장발달과 자아개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원인이 된다. 부모의 부재로 인해 문제를 혼자서 해결해야하는 결손가정 아동은 정서적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고 갈등상황을 해결하지 못하여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김영태 2010; 성혜영, 김광웅, 이재연, 서영숙, 이소희, 2002).

가정은 외부에서 생긴 아동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이다. 그러나 결손가정 아동은 부모의 부재와 방치로 인해 자신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좌절감, 열등감에 빠져 낮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한다(이현주, 2010). 낮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한 결손가정 아동은 학업성취도, 사회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래와의 관계를 기피하게 된다(이은경, 2004; 이은수, 2009). 이로 인해 학교에서의 또래관계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심리·정서적으로 자신감을 잃게 되며 스스로 문제에 직면하여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이 저하된다. 이처럼 다양한 성취감을 경험하도록 하는 가족관계는 자기효능감 향상에 도움을 주지만 가족관계의 특성이 역기능일 경우 자기효능감 향상에 어려움을 준다(Ryan, 1996).

Brenda(1992)는 또래관계에서의 갈등해결전략과 아동의 자기효능감 간에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이유미, 김정희, 김동원, 2009, 재인용).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보이지 않고 갈등해결이 원활한 아동은 자기효능감이 발달되어 있으나 관계형성,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의 경우 자기효능감이 낮게 나타난다. 즉, 또래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은 결손가정 아동에게 자기효능감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가족변화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결손가정 아동의 자기효능감을 길러주는 일은 또래관계 기술을 익혀 원만한 또래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고 진로성숙도 및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이재인, 김춘경, 한은수, 2014; 장용희, 한정현, 이재신, 2014).

아동에게 음악은 또래와의 원만한 관계 형성과 자기효능감을 길러 주는 치료적 도구가 되며,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을 악기나 노래로 표현하고 또래

와 소통하도록 하여 아동의 성장·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음악은 감정 표현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아동에게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데 효과가 있으며, 음악적 환경 안에서 행동조절을 배우도록 한다(김종인, 2008; 정현주, 김동민, 2010). 그룹원과 함께하는 음악활동을 통해 아동에게 소속감과 연대감을 느끼게 하고 또래와 상호작용하며 함께 토의하고 연주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효능감이 향상된다.

타악기는 두드리기, 흔들기 등의 단순한 연주 방법을 통해 아동에게 성공적인 음악경험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주로 신체의 움직임과 손의 조작으로 연주되기 때문에 음악의 강도가 직접적으로 신체에 전달되어 감정의 분출구 역할을 한다(정현주, 김동민, 2010; 정현주, 2011). 그룹원과 함께하는 타악기 연주는 자신과 타인을 인식하고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여 그룹원과 상호작용하도록 돕는다(이경진, 김수지, 2011).

합주는 악기가 어우러져 하모니를 이루고 음악으로 소통하도록 하여 또래와 관계 형성을 돕는 치료적인 기능을 한다(정현주, 2011; 주빛나, 2014). 타악기 합주는 아동에게 성공적인 경험을 제공해주고 그룹원이 함께 어우러져 연주하기 때문에 역동적인 음악을 만들며 내재된 에너지를 표출할 기회를 제공한다(정현주, 2015). 아동은 합주를 통해 자신이 맡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책임감을 기르고 음악을 함께 완성하는 경험을 통해 또래간의 조화를 이룬다. 음악 안에서 단계적이고 구조적인 합주 활동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향상에 도움을 준다(김선하, 2009; 양은정, 2007).

타악기 합주를 활용하여 아동에게 음악치료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톤차임(유율 타악기)을 사용한 합주가 아동의 주의집중력과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며(정진희, 정규진, 최애나, 2015), 기악합주활동의 음악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또래관계 기술에 향상에 효과적이며(김혜정, 양은아, 2013), 리듬악기합주 활동이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성 및 자기효능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김선하, 2009; 홍순화, 2011). 이러한 선행연구는 타악기 합주를 통한 음악치료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향상, 사회성 향상 및 또래관계 기술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아동에게 타악기 합주는 치료적 요소로 활용가능하며 자기효능감과 또래관계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결손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치료 연구에 의하면 그룹원들과 함께하는 음악활동은 결손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하였으며(서아름, 이드보라, 2012; 안지숙, 2008), 또래와의 음악치료가 아동에게 성공경험을 제공해주고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김성애, 2008). 결손가정 아동을 포함한 저소득층, 지역아동센터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치료가 자기표현,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또래관계 기술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 하였으나(김수희, 2009; 김지은, 2016; 김혜정, 양은아, 2013; 백수정, 강경선, 2016; 이민화, 2014; 이은혜, 2016; 허혜진, 2010), 결손가정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치료 연구(안지숙, 2008; 임수진, 2010; 정진희, 정규진, 최애나, 2015)는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이에 본 연구는 결손가정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또래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타악기 합주 프로그램을 통해 그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타악기 합주 음악치료가 결손가정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또래관계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있으며,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문제 1-1. 타악기 합주 음악치료 활동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 간의 자기효능감 척도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가?

1-2. 타악기 합주 음악치료 활동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자기효능감 척도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가?

문제 2-1. 타악기 합주 음악치료 활동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 간의 또래관계 척도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가?

2-2. 타악기 합주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또래관계 척도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결손가정 아동

1) 결손가정의 개념 및 실태

결손가정은 부모와 미성년자 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가정의 형태에서 부모의 한쪽 또는 양쪽의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가정을 말한다. 부모가 질병, 사고, 산업재해 등으로 사망하였거나 이혼, 별거, 가출, 장기부재로 인해 결혼관계가 분열되어 양친 또는 그 어느 하나의 편친이 없는 형태이며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이 이에 속한다(김해숙, 이종한, 2016; 조홍식, 김인숙, 김혜란, 김혜련, 신은주, 2010).

한부모가정은 편부가정 또는 편모가정을 의미하며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는 자,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미혼자’인 가족을 의미한다(한부모가족지원법, 2016). 조손가정은 일반적으로 1세대인 조부모와 3세대인 손자녀로 구성되어 있다. 자녀를 돌볼 능력을 상실한 2세대 성인 자녀를 대신해서 조부모가 손자녀의 기본적인 생활 욕구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가족형태이다(성정현, 여지영, 우국희, 최승희, 임세희, 2014).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기본계획(2015)에 따르면 2010년에 비해 이혼, 별거,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가족형태의 다양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2015)에 의하면 한부모 가구는 2005년 137만 6천 가구에서 2010년 159만 4천 가구, 2015년 178만 3천 가구로 증가하였고, 전체 가구에서 한부모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8.61%에서 2010년 9.19%, 2015년 9.54%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조손 가구는 2005년 5만 8천 가구, 2010년 11만 8천 가구, 2015년 15만 2천 가구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가구에서 조손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0.36%, 2010년 0.67%, 2015년 0.70%로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을 포함한 결손가정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결손가정은 일반가정에 비해 경제적, 가정 환경적, 사회적 측면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확률이 높다. 첫째, 결손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한부모 월평균 가구소득은 2012년 172만원에서 2015년 189만원으로 9.8% 증가하였으나 전체 월평균 가구소득에 비해 한부모 월평균 가구소득 비율은 48.7%로 1/2수준이며, 전체 가구 순자산 대비 한부모 가구 순자산 비율은 23.7%로 1/5수준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6). 즉, 한부모가정의 월소득은 3년 사이에 약 10% 증가하였지만 순자산 비율로 보자면, 10가구 중 8가구가 빈곤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가족부의 2010년 조손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조손가정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약 59만원으로,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의 가구가 전체의 44.0%로 가장 많았고, 40만원 미만 가구가 20.1%, 80만원 이상의 소득은 17.9%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조손가정 중에서 월평균 소득이 80만원 미만인 가구가 64.1%로 과반수 이상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가정 환경적 측면에서의 자녀양육시간의 부족이다. 결손가정 중 한부모는 가정경제활동의 주체이며 동시에 양육자가 된다. 한부모의 48.2%가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근무하며, 주 5일 근무하는 한부모는 29.8%에 불과하다(여성가족부, 2016). 장시간 근무와 주말까지 이어지는 연장업무로 인해 결손가정의 양육자는 아동을 돌보는 양육 시간이 줄어들고 지역아동센터, 아이돌봄센터의 도움을 받는 양육형태에 의존하게 된다(보건복지부, 2013). 이는 결손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부모가 자녀에게 할애할 양육시간이 부족해지는 문제로 이어짐을 시사한다. 한부모는 가사, 자녀의 양육, 가족의 생

계를 혼자서 책임져야하기 때문에 아동은 부모로부터 충분한 양육을 제공받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을 기회가 적으며 제한된 환경에서 자라게 된다. 조부모의 경우 연령에 맞는 직업을 구하기 힘들뿐 아니라 신체적 움직임의 한계로 인해 생계비용과 양육을 함께 감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김경희, 2003; 이은경, 2004).

셋째, 사회적 측면에서의 빈번한 아동 학대의 발생이다. 보건복지부 전국 아동학대현황보고서(2014)에 따르면 결손가정 아동이 일반가정 아동보다 학대 발생률이 높다고 하였다. 아동학대 가족유형 중 부자가정은 18.8%, 모자가정은 14.1%, 미혼부모가정은 2.1%로, 한부모가정이 전체 아동학대 가족유형의 35.0%를 차지한다. 전체 아동학대 발생률 중 친부모가 아동을 학대하는 확률은 44.5%이며 그중 35.0%가 한부모가정 아동으로 결손가정 아동의 학대 빈도가 높다. 이처럼 결손가정은 일반가정에 비해 경제적인 어려움, 양육시간의 부족, 아동학대 노출의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2) 결손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특성

아동기는 신체적, 지적, 도덕적, 심리적, 사회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아동의 발달단계에 어떤 과정을 경험하느냐에 따라 그 일생을 결정하는 기초가 된다(유안진, 2000). 부모는 아동이 성장·발달함에 따라 양육과 교육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동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아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는 아동의 일차적인 사회화 모델로 작용하여 아동의 성격형성, 가치관 및 태도, 자아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가 원활하고 안정되었을 때 아동의 의식구조가 긍정적으로 발달하게 되며 학업성취도, 사고력, 창의성이 고취된다(김경희, 2003).

부모와의 원활한 관계가 중요한 아동기는 가족의 변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시기이다. 유아는 가정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지만 아동은 가정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부모의 결손은 아동에게 정서적 혼란을 야기하며 행동의 변화를 초래한다(박명숙, 1996). 결손가정 아동은 완전한 성인으로 성장·발달하기 이전에 부모 중 한 사람 혹은 둘 다를 잃게 되는 경험을 함으로써, 가정의 균형이 깨지고 부모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게 된다(김해숙, 이종한, 2016). Richman, Steavernson와 Grahanm(1982)은 결손가정 아동의 경우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정서문제와 행동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2-5배 정도 높다고 하였다. 불안한 정서와 상황에 따른 부적절한 행동은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아동이 사회적으로 위축되거나 반대로 공격적인 성향으로 발달하게 하고, 심리적 불안감, 우울감 등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된다(이은경, 2004).

김윤효(2008)와 임수진(2010)은 결손가정 아동이 부모와의 분리경험으로 가족 내 역할의 균형이 깨져 불안감을 느끼고,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였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부모가 결손된 아동은 부모의 갈등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자책을 하게 되며 자신감을 상실하고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강정숙, 2005).

이렇듯 아동의 건강한 심리적·정서적 발달을 위해 결손가정 아동의 양육자는 현재 처해진 상황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하며, 결손가정의 형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가족환경의 원인이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알도록 하고, 감정의 갈등 및 변화에 대해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해야 한다.

2. 결손가정 아동의 자기효능감 및 또래관계

1) 결손가정 아동의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자신을 통제하고, 가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에 대한 신념이다(Bandura, 1977). 이는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통제하고 다양한 노력을 실행함으로써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한다. 자기효능감이 부족하여 자신에게 원하는 결과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목표를 위한 행동을 실행으로 옮기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윤운성, 정정옥, 가경식, 2004).

자기효능감은 강도, 수준, 일반화 정도에 따라 측정할 수 있으며 이 3가지의 차원이 변화함에 따라 개인의 효능감이 변화한다. 자기효능감의 3가지 차원은 사람의 생각, 느낌, 동기화, 행동에 변화를 주고 이는 개인의 삶의 질과 목적을 이루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 높은 효능감은 사회적 영역을 확장시켜 자신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한다.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보다 어려운 작업을 선택하고 스스로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여 작업에 충실히 임한다.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작업의 몰입도가 높으며 효능감이 낮은 사람들보다 오랜 시간 집중한다.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진행 도중 차질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복구하고 자신의 목표에 대한 의지를 유지할 수 있다(윤운성, 정정옥, 가경식, 2004; Bandura, 1977; Schwarzer, Bassler, Schroder, & Zhang, 1997).

자기효능감이 높은 아동은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더 높은 수준의 목표를 수행하려한다.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실패를 불안해하지 않고

어려운 과제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이는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객관적으로 문제를 파악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 반면 자기 효능감이 낮은 아동은 실패를 불안해하며 실패에 대한 결과를 시각화한다. 이로 인해 문제해결을 위한 실행에 부담감을 느끼며 동기가 저하되는 모습을 보인다. 아동에게 큰 부담감과 동기저하는 자신감을 떨어트리게 하며 성취지양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정옥분, 2013; Bandura, 1977). 이렇듯 자기효능감은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능동적인 대처와 해결방안에 대한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된다(이유미, 김정희, 김동원, 2009).

결손가정 아동은 자신의 심리·정서적 문제와 고민을 해결해줄 대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혼자서 문제를 해결해야할 경우가 많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쉽게 좌절하게 되고 불안감이 높아진다. 타인이 아닌 자신이 문제를 판단하고 결정해야함으로 문제 해결에 대한 확신이 없어 자신감을 잃게 되고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경험하며 낮은 자기효능감을 갖게 된다(김혜숙, 이종한, 2016). 이유미, 김정희와 김동원(2009)은 불안정한 가정환경이 아동의 자기효능감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자존감, 학습능력 등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자신감을 저하시킨다고 하였다.

2) 결손가정 아동의 또래관계

또래는 사회적으로 동일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또는 유사한 행동수준에서 비슷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또래관계는 비슷한 나이의 아동들에 의해 형성된 집단을 말한다(성자영, 2011; 송영혜, 2012). 정서적 유대감을 지닌 또래관계는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 통해 서로 수용하고 인정하는 상호 역동적인 관계이며, 구성원들 간에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동등한 관계를 뜻한다

(송영혜, 2012; Shaffer, 2005/2008).

아동의 성장에 있어 또래관계 형성 및 또래집단에 수용되는 경험은 아동의 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유안진, 2000). 아동은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또래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모방을 통해 배운다. 또래는 부모와 다르게 동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시도해보지 않았던 역할을 다양하게 시도한다. 이때 아동은 또래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주체가 되는 주동자가 되기도 하고 또래의 의견을 따르는 추종자가 되기도 한다. 또한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제안하고, 타인이 제안한 의견을 수용하며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게 된다. 때로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거절감을 느끼고 또래와의 갈등을 경험하기도 한다. 또래갈등이 있을 때 서로 타협하고 수용하는 기술을 배우게 되면서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최석란, 2001). 이를 통해 자기중심적 사고가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관계중심적 사고로 확장되며,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해지고 또래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인지적으로 발달하게 된다(성혜영, 김광웅, 이재연, 서영숙, 이소희, 2002; 이은수, 2009).

아동은 또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애착형성을 통해서도 타인과 관계 맺는 법을 배운다.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또래와의 관계에서 적응이 빠르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사귄다. 부모를 통해 타인을 수용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 곤경에 처한 사람을 잘 돕고 공격적인 행동을 적게 한다. 반대로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또래와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노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며, 자신보다 어린 아동과 노는 것을 선호한다(정옥분, 2013; 최석란, 2001). 또래와의 놀이집단에 소속되려는 시도를 하지 않거나 무관심한 행동을 보이고 또래들을 괴롭히고 지배하려고 한다(성자영, 2011).

결손가정 아동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의 올바른 가

치관과 모델을 학습하지 못하게 되면서 심리적 소외감을 느끼고 사회성이 결여되어 또래관계에 문제점을 보이게 된다(신혜령, 정재훈, 김성경, 2006). 박완주(2007)는 결손가정 아동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어 또래관계에서 경계적인 모습을 보이며 일반 아동과의 정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김은아와 김정남(2011)은 결손가정 아동이 자신이 결손가정의 자녀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두려움을 느껴 또래관계에서 문제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처럼 불완전한 아동기의 또래관계는 아동의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주고 아동의 심리적·사회적인 불안을 경험하게 한다.

3. 결손가정 아동을 위한 타악기 합주 음악치료

1) 타악기 합주의 개념 및 특성

타악기는 打(칠 타), 樂(음악 악, 악기 악), 器(그릇 기)를 나타내는 한자어로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악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타악기의 소재에 따라 나무, 가죽, 금속, 유리, 플라스틱 등으로 이루어지며 소리내기, 흔들기, 두드리기, 치기 등의 단순한 연주 방법을 통해 아동에게 성취감과 만족감을 경험하게 한다. 타악기는 음고가 없는 무율 타악기뿐만 아니라 일정한 음고가 있는 유율 타악기를 포함한다. 무율 타악기는 리듬과 박자를 담당하며 일정한 박자와 강약의 리듬은 심리적·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일정한 음을 내어 노래를 만드는 유율 타악기는 현악기, 관악기와는 다르게 음정이 고정되어 있어 정확한 음정을 경험하도록 하고 넓은 음역대를 자유롭게 연주하도록 한다. 무율 타악기와 유율 타악기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리듬과 에너지를 제공하는 동시에 선율의 흐름이 감정을 자극하여 음악적 풍성함을 제공해준다(양근수,

2008; 최경환, 박창태, 2001).

타악기 합주는 두 명 이상의 구성원들이 함께 타악기를 연주하는 것이며, 리듬을 조합하여 연주되는 구조적인 연주방법이다. 타악기 합주의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인 리듬은 박의 분할을 의미하며 박의 간격이 동일할 때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도록 한다. 반대로 박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적일 때는 감각을 자극하고 음악적 에너지를 변화시켜 정서적 반응을 이끌어낸다(정현주, 2011).

그룹원과 함께하는 타악기 합주는 강력한 조직력을 가진 에너지로 작용하여 긴장이나 불안한 정서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주며 자기표현 능력을 향상시키고 대인관계 기술 및 그룹 응집력을 증진시킨다(장빛나, 2009; 정현주, 김동민, 2010). 합주를 통해 타인과 조화를 이루고 음악으로 소통하도록 하여 또래와의 협동심, 책임감, 단결심 등을 기르도록 한다(정현주, 2011).

양은정(2007)은 타악기 합주가 또래와 상호적인 관계를 갖게 하고 또래관계에서 자신의 욕구 통제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정진희, 정규진과 최애나(2015)는 유율 타악기를 활용한 합주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킨다고 하였으며, 김영은(2016)은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아동이 타악기 합주를 통해 타인에게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이 자신을 수용해주는 경험을 하게 되며 사회 기술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2) 타악기 합주의 치료적 접근

치료적 접근으로서의 타악기 합주 방법은 드럼서클, 타악기 즉흥연주, 난타, 리듬밴드 합주이다. 첫째, 드럼서클(Drum Circle)이란 집단의 구성원들이 원 모양으로 모여서 다양한 타악기를 사용하여 음악을 연주하는 타악기 합주방법이다. 이 과정을 이끌어가는 그룹의 리더를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라고 한다. 퍼실리테이터는 연주에 관한 지시를 행동과 언어로 나타내며, 교사나 타악기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가능하다.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은 드럼서클에 참여한 사람들이 연주를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음악의 빠르기와 리듬을 조절하여 음악적 상호작용을 하도록 돕는다. 대표적인 지시 방법으로는 어텐션 콜(Attention Call), 스탑 컷(Stop Cut), 콜 투 그루브(Call to Groove) 등이 있다.

어텐션 콜은 손을 높이 들어 모두가 주목을 끌 때까지 원 안을 돈다. 그룹원들에게 음악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다. 스탑 컷은 연주를 할 때 멈추도록 하는 신호로, 손가락으로 4, 3, 2, 1의 숫자를 표시하여 연주를 미리 멈추도록 제시한 뒤 'X'자 형태로 양팔을 교차시켜 연주를 멈추게 한다. 콜 투 그루브는 그룹원에게 '하나, 둘, 다같이 연주' 혹은 '하나, 둘, 자유롭게 연주' 등과 같이 언어적인 지시로 연주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때 목소리, 말투가 일정한 박자에 맞추어 유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Hill & Hull, 2013/2015). 즉흥적이고 역동적인 드럼서클은 그룹원과 함께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으며 소속감과 신뢰감을 경험할 수 있다(유지아, 2016).

둘째, 타악기 즉흥연주는 내담자가 느끼는 감정과 경험을 타악기로 표출하는 방법이다. 자신이 느끼는 현재의 감정을 악기연주로 표현하며 자신을 탐색하도록 한다. 즉흥으로 연주된 음악은 내적 정서를 드러나게 하고 학습, 행동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에게 자기표현을 촉진시키며 공격성이나 적대감을 감소시킨다(김영은, 2016). 치료적 상황에서 연주되는 즉흥적 연주법을 통해 아동의 성향을 알 수 있다. 음악의 주제를 제공해 주었을 때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향의 아동은 연주의 폭이 좁거나 경직되어 연주하는 모습을 보이나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성향의 아동은 연주의 폭이 크고 주제에 따라 새롭고 다양한 방식의 연주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인다(정현주, 2011). 타악

기 즉흥연주는 비언어적으로 리듬을 사용하여 연주자의 심리·정서를 반영한다. 또한 불안한 정서를 경험하는 결손가정 아동에게 감정과 정서를 표현하고 조절하도록 하며, 위축되고 소극적인 아동에게 표현의 폭을 넓히도록 도울 수 있는 치료적 역할을 한다.

셋째, 난타는 두드림만으로 그룹원과 소통하는 비언어극이다. 그룹원 모두 동일한 리듬을 연주함으로써 안정감을 느끼고 같은 진동을 경험하고 공유함으로써 그룹원간의 소속감을 기를 수 있다(염상석, 2012). 난타는 리듬, 박자, 상황으로 구성된 비언어극이기 때문에 언어의 장벽을 없앨 수 있다. 또한 사물놀이의 리듬을 조화롭게 사용하고 리듬의 다양성을 제공해주어 흥미를 유발시킨다. 난타에서 사용되는 연주방법은 다양하다. 북면과 북테를 사용하여 리듬을 만들고 오른손으로 북면과 북테를 칠 경우와 왼손으로 북면과 북테를 칠 경우의 구음을 다르게 제시하여 아동이 쉽게 연주법을 습득하도록 한다(이은경, 2008; 허선, 문현미, 2013). 김동은과 전인옥(2014)은 아동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난타 음악활동은 아동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으며, 음악활동에 참여한 아동이 음악활동을 참여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넷째, 리듬 밴드 합주는 밴드 합주의 변형으로 타악기로 이루어진 밴드형식을 말한다. 리듬 밴드는 리듬 악기가 주체가 되고 북, 심벌즈, 셰이커, 우드블럭, 캐스터네츠와 같은 악기가 사용되며 곡의 구성에 맞게 적절히 악기를 배치하여 합주하는 형태이다(육순진, 박현진, 2002). 리듬 합주 시 악기 음색 배합, 악기 배치, 곡의 분위기, 곡의 다이내믹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각자의 연주법을 습득하여 합주가 이루어 질 때 조화로운 음악을 경험하며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된다(정현주, 2011). 김상락(2014)은 밴드 합주 시 다른 사람의 연주를 듣고 기다리기, 순서 지키기 등을 통해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을 익히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3) 결손가정 아동을 위한 타악기 합주 음악치료

음악치료에서 음악은 아동에게 억압된 정서나 감정을 악기나 노래로 표현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도구이다. 또한 다양한 감정을 보다 깊게 표현하도록 도우며, 더 나아가 타인과 감정을 나누는 매개체로 사용된다. 음악은 감정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데 효과가 있으며 타악기를 연주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행동조절을 배우게 되고, 감정적인 분출구 역할을 하게 된다(김종인, 2008; 정현주, 김동민, 2010).

부모의 부재로 인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결손가정 아동은 단계적으로 제공되는 신체적 활동, 가창 활동, 악기연주 경험 등을 통해 문제를 인지하고 통찰하여 문제 해결에 대한 대처 기술을 배울 수 있다(Borczon, 1997/2004). 자신감이 낮고 소극적인 결손가정 아동에게는 음악과 악기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의사표현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룹원과 함께하는 연주는 아동에게 부담감을 덜어주어 음악 안에서 자신을 표현하도록 한다. 사회성이 결여된 결손가정 아동은 그룹원과 협력하여 음악을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타인을 수용하는 경험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다. 음악 활동 중 지시 따르기, 주의 기울이기, 주고받기, 차례 기다리기 등은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사회경험에 참여하도록 하여 사회적 기술을 기르는데 도움을 준다(Wanda, 2002/2009).

결손가정을 대상으로 한 음악치료 연구에 의하면 이나경(2011)은 음악을 창작하고 연주하는 치료적 음악 만들기 활동이 양육자와 결손가정 아동의 의견을 교류하고 서로를 경청함으로써 공감적인 의사소통을 하게 한다고 하였다. 김선정과 김근식(2015)은 그룹원과 함께하는 타악기 연주가 결손가정 아동에게 감정의 표현을 도와주며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인 정서로 변화시키는 데 유용하고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향상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결손

가정 아동은 구조화된 음악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경험하고, 악기연주를 맞춰가는 과정을 통해 또래와의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하였다(김혜정, 양은아, 2013; 손미나, 2015). 이처럼 결손가정 아동은 음악을 통해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그룹원과 소통함으로써 타인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된다. 또한 함께 음악을 완성해가는 성공적인 경험이 사회성 향상 및 대인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결손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정서적 발달에 효과적인 치료적 도구가 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G구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결손가정 아동들 중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 아동 2-4학년층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은 사회복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아동 14명(남자 7명, 여자 7명)을 선정하였으며, 실험집단 7명(남자 3명, 여자 4명)과 통제집단 7명(남자 4명, 여자 3명)으로 무선배치하였다.

2. 측정도구

1) 자기효능감 척도(Self - Efficacy scale: SES)

아동과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차정은(1996)이 개발하고 김아영(1997)이 번안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는 총 24문항으로 자신감 7문항, 자기조절효능감 12문항, 과제난이도 선호 5문항인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24개 문항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 “매우 그렇다”에 5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부정문으로 진술된 문항인 자신감 7문항, 과제 난이도 2문항을 역으로 채점하였다. 김아영(1997)의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7이며, 각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계수는 <표Ⅲ-1>과 같다.

<표Ⅲ-1> 자기효능감 척도의 하위요인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	Cronbach's α
자신감	1*, 3*, 5*, 10*, 11*, 13*, 16*	.79
자기조절효능감	2, 4, 7, 8, 12, 14, 17, 19, 20, 21, 23, 24	.86
과제 난이도	6*, 9*, 15, 18, 22	.83
계		.87

* 역채점 문항임

2) 또래관계 질 척도

또래관계의 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Furman과 Buhrmester(1985)가 개발한 NRI(Network of Relationships Inventory)의 항목 중 또래와의 관계에서 주로 나타나는 특성만을 추출하여 김진경과 유안진(2002)이 번안하고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긍정적 요인 20문항과 부정적 요인 20문항인 2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있다. 긍정적 요인은 우의, 상호친밀감·공감대, 정서적·사회적 지지, 갈등 해결, 인기, 또래관계 만족이 있으며, 부정적 요인은 갈등·대립, 일반적 주도, 철회·고립, 무시, 또래관계 불만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40개 문항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 “매우 그렇다”에 5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부정문으로 진술된 문항은 역으로 채점한다. 김진경과 유안진(2002)의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9이며, 각 하위영역별 문항구성과 신뢰도계수는 <표Ⅲ-2>와 같다.

<표Ⅲ-2> 또래관계 질 척도의 하위요인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	Cronbach's α
긍정적 요인 (우의, 상호친밀감·공감대, 정서적·사회적 지지, 갈등 해결, 인기, 또래관계 만족)	1, 3, 5, 8, 10, 12, 13, 14, 17, 18, 20, 22, 25, 26, 27, 30, 32, 35, 36, 39	.90
부정적 요인 (갈등·대립, 일반적 주도, 철회·고립, 무시, 또래관계 불만족)	2*, 4*, 6*, 7*, 9*, 11*, 15*, 16*, 19*, 21*, 23*, 24*, 28*, 29*, 31*, 33*, 34*, 37*, 38*, 40*	.76
계		.89

* 역채점 문항임

3. 연구설계 및 절차

1) 연구설계

본 연구의 목적은 타악기 합주 음악치료 활동이 결손가정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실험설계는 사전-사후 통제집단 설계모형(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을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인은 타악기 합주 음악치료, 종속변인은 자기효능감과 또래관계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표Ⅲ-3>와 같다.

<표Ⅲ-3> 연구 설계 모형

	사전검사	중재	사후검사
실험집단	O1	X	O2
통제집단	O3		O4

X : 타악기 합주 음악치료 활동

O1, O3 : 사전검사(자기효능감, 또래관계)

O2, O4 : 사후검사(자기효능감, 또래관계)

2)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 실험집단은 자기효능감 및 또래관계 향상을 위한 음악치료 활동에 참여하며, 통제집단은 사전, 사후 검사만 진행하고 음악치료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서울 G구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초등학생 2학년-4학년 중 결손가정 아동 7명을 대상으로 2016년 8월 22일부터 10월 5일까지 주 2회, 60분씩 총 12회기로 진행하였다. 도입 10분, 음악치료 활동 40분, 마무리 10분 총 60분으로 구성하였으며 한 회기의 세션의 구성은 <표Ⅲ-4>와 같다.

<표Ⅲ-4> 음악치료 활동 한 회기 구성

세션구성	시간	활동내용
도입	10분	인사노래, 위밍업 활동
중심활동	40분	타악기 합주를 활용한 음악치료 활동
마무리	10분	음악활동에 대한 느낀 점 나누기

4. 음악치료 활동안 구성

본 연구는 타악기 합주를 활용한 음악치료 활동으로 타악기 즉흥연주, 무을 타악기와 유을 타악기의 합주, 드럼서클, 난타, 리듬밴드합주를 사용하였다. 결손가정 아동을 위한 타악기 합주 음악치료 활동안은 총 3단계로 나누어 도입단계(1-2회기), 전개단계(3-10회기), 종결단계(11-12회기)로 진행하였으며 연구 전 음악 선호도를 조사하여 곡을 정하고 활동을 구성하였다.

도입단계에서는 친밀감과 관계형성을 목표로 활동을 구성하였다. 자신을 소개함으로써 치료사와 그룹원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고, 그룹원들이 선호하는 곡을 들으며 악기를 연주함으로써 인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또한 신체로 리듬을 표현하고 악기로 모방하는 활동이 아동에게 그룹원으로서 소속감을 갖게 하였다. 전개단계에서는 타악기 합주를 통해 타인과 자기 인식, 자기표현, 자아존중감 및 자신감 향상, 상호교류 증진 등을 목표로 하였다. 난타, 드럼서클, 무을 타악기와 유을 타악기 합주, 리듬밴드 합주 등을 활용하여 그룹원들과 음악적으로 소통하고 음악적 지지를 경험하도록 하였다. 종결단계에서는 성취감과 또래유대감 향상을 목표로 그룹원들과 함께 만든 노래를 합주하여 유대감을 느끼도록 하였으며 완성한 곡을 녹음하여 듣고 의견을 나눔으로써 함께 이뤄냈다는 성취감과 만족감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회기별 타악기 합주 음악치료 활동안을 살펴보면 1회기는 그룹원들과 치료사간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인사노래를 부른 뒤 개사하여 자신을 소개하였다. 악기별 연주법을 소개한 뒤 자유롭게 연주함으로써 음악이라는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였다. 다같이 노래하고 악기연주를 주고받는 형식을 통해 치료사와 그룹원간의 친밀감 형성을 돕고 또래와의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였다.

2회기는 신체를 사용하여 발을 구르거나 손뼉을 치면서 리듬을 만드는 활동을 구성하였다. 신체로 만든 리듬을 다른 그룹원이 악기로 모방하여 반영해줌으로써 아동이 지지받는 경험을 하고 소속감을 느끼게 하였다. 자신의 신체를 사용하여 만든 리듬이 악기로 연주되는 과정을 통해 호기심과 흥미를 느끼도록 하였다.

3-4회기는 쥘베를 사용한 난타 활동으로 쥘베 합주를 통해 타인과 자신을 인식하고 소속감과 신뢰감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3회기에서는 기본 리듬을 활용하여 그룹원들이 선호하는 곡인 '여행을 떠나요' 노래에 맞춰 합주하였다. 타인과 함께 맞춰 합주하는 과정이 자신과 타인을 인식하게 하여 자신의 소리의 강도를 조절하도록 하였다. 4회기는 리듬 만들기 활동으로, 기본 리듬을 토대로 다양한 리듬을 만들고 그룹원이 제시한 리듬을 활용하여 4가지 리듬을 구성하여 합주하였다. 리듬 주고받기, 리듬 지휘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타인과 조화를 이루어 음악을 완성하도록 하였다. 이는 타악기 합주가 그룹원들 간에 소속감·신뢰감을 경험하도록 하며, 타악기로 자신을 표현하고 또래와 소통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5-6회기는 드럼서클을 활용한 활동으로, 자신의 억압된 감정을 타악기를 두드리며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였다. 친구들과 싸웠을 때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악기연주로 자신을 표출하며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도록 하였다.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휘 경험은 그룹원과 비언어적으로 소통을 하도록 하며, 그룹을 통솔하는 리더 경험은 아동의 주도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7-8회기는 아동에게 음악적 폭을 넓혀주고 다양성을 제공하기 위해 무율 타악기와 유율 타악기를 함께 사용하여 합주하는 활동을 구성하였다. 7회기에서 사용된 '젓가락 행진곡'은 4분음표가 일정하게 반복되어 연주하기 용이하고 음악구조 안에서 안정적인 정서를 느끼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유율

타악기 연주에 무릎 타악기를 추가로 구성하여 선율에 리듬을 입혀 음악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였다. 8회기는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단계적으로 난이도를 높여가며 구조적인 유희 타악기 합주를 진행하였다. ‘도레미 송’ 가사의 색깔과 핸드벨의 악기 색깔이 같을 때 악기를 연주하도록 하였으며 단계별로 제공되는 음악 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문제를 해결했을 때 성취감과 만족감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9-11회기는 리듬밴드 합주 활동으로, 9회기는 상호교류 증진을 위해 그룹원과 토의하여 각자 악기를 정하고 연주의 파트를 나누도록 하였다. 악기 선택 시 그룹원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타인의 의견을 수용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도록 하였다. 그룹원이 선곡한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세요’ 노래를 듣고 합주하며 맞춰가는 과정을 통해 조화를 이루고 상호교류와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키도록 하였다. 10회기 노래 만들기는 핸드벨을 사용하여 즉흥으로 연주하고 모티브가 되는 멜로디로 곡을 창작하였다. 창조성을 발휘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을 통해 아동은 성취감을 경험하고 또래와의 관계를 향상시키도록 하였다. 또한 소리를 창조함으로써 인해 자신을 개발하도록 하고, 음악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도록 하였다. 11회기는 또래 유대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만든 곡을 합주함으로써 또래와 감정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였다. 다른 사람의 연주를 듣고 기다리기, 순서 지키기 등의 활동은 사회적 기술을 익히는데 도움을 주었다.

12회기는 함께 만든 곡을 다시 연주하고 녹음하는 과정을 통해 아동에게 자긍심을 길러주고 완성된 음악은 아동에게 만족감, 성취감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동안 해왔던 활동 중 기억에 남는 활동에 대해 이야기 하고 음악 활동이 어땠는지 나눔으로써 종결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타악기 합주 음악치료 활동안의 회기별 활동 및 치료적 근거를 도식화하면

<표 III-5>과 같다.

<표III-5> 회기별 타악기 합주 음악치료 활동안

단계	회기	목표	활동 내용	치료적 근거
도입	1	관계 형성 및 친밀감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ello song을 부르며 자신을 소개하기 - 타악기의 종류 및 연주법 소개하기 - 자신이 원하는 타악기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래로 자신을 소개하는 활동은 치료사와 음악, 그룹원간의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고 음악 안에서 소통함으로써 친밀감을 형성하도록 한다(정현주, 2011). - 그룹원과 타악기를 사용하여 자유롭게 연주함으로써 자신을 표현하도록 하고 그룹원간의 관계를 맺도록 한다(정현주, 김동민, 2010).
	2	소속감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구르기, 손뼉치기로 리듬을 만들고 다른 그룹원이 악기로 리듬 모방하기 - 무릎 타악기로 타악기 즉흥연주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여 리듬을 만들고 다른 그룹원이 리듬을 모방하여 악기로 즉각적인 반응을 해줌으로써 그룹원간의 소속감과 신뢰감을 길러주고 악기로 감정과 정서를 표현하도록 돕는다.
	3	타인/자기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잼베를 이용한 난타 합주1 (기본 리듬 익히기) - 잼베 연주법 익히기 - 합주 구간을 나누어 ‘여행을 떠나요’를 듣고 무릎 타악기로 합주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똑같은 리듬 패턴을 함께 연주함으로써 그룹원의 지지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합주를 맞춰가는 과정을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인식하도록 한다.
	4	자기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잼베를 이용한 난타 합주2 (리듬 변형하기) - 리듬 만들기 - 리듬 주고받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리듬을 활용하여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악기로 표현하도록 한다.

		- 난타 퍼포먼스	- 난타합주는 자신의 감정을 악기로 표현하도록 하며, 비언어적·언어적 의사소통 통로를 확립하여 자기표현을 가능하게 한다(Wanda, 2002/2009).
	5	감정 표현 및 부정적 감정 통제 - 친구와 싸웠을 때 / 화해했을 때의 감정을 이야기 한 후 타악기로 표현하기 - 드럼서클 활동1 (용어 이해, 어텐션 콜, 스톱 컷)	- 드럼서클은 악기연주 시 감정과 정서를 자극하게 되어 에너지를 분출하도록 하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도움을 준다. - 부정적인/긍정적인 감정을 타악기로 표현하며 내재된 에너지를 표출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조절 하도록 한다(황은영, 정은주, 이유진, 2014).
전개	6	주도성 및 자아존중감 향상 - 다양한 타악기를 활용하여 드럼서클 활동 2 (어텐션 콜, 스톱 컷, 조각하기, 콜 앤 리스판스) - 퍼실리테이터가 되어서 리더경험 갖기	- 그룹에서의 리더경험은 결손가정 아동에게 주도성과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 드럼서클 지시 방법으로 그룹원에게 악기연주를 유도하였을 때 자신이 지시 하는대로 음악이 만들어지는 경험은 아동에게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유지아, 2016).
	7	자신감 향상 - 무울 타악기와 유울타악기 합주1 - 숫자 악보 보며 유울 타악기(공명 실로폰)로 '깃가락 행진곡' 연주하기 - 돌아가며 한명씩 공명 실로폰을 연주하고 나머지 그룹원이 무울 타악기(잼베와 심벌, 웨이커)로 타악기 합주	- 결손가정 아동은 타악기 합주를 통해 자신의 역할을 발견하게 되어 자신감과 자긍심이 향상되고 자신의 연주 파트를 성실히 수행했을 때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다. - 무울 타악기와 유울 타악기를 함께 연주함으로써 음악적 폭이 넓어지고 음악적 지지가 커지면서 연주의 행동범위도 확장되어 더 자신 있게 표현하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율타악기의 멜로디는 조성을 통해 이동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한되고 경직된 감정을 열어주는데 도움을 주고 멜로디의 진행을 통해 아동의 참여를 높여 자신 있게 연주하도록 한다(황은영, 정은주, 이유진, 2014).
8	문제해결 능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율 타악기와 유율타악기 합주2 - 색깔 악보를 보며 '도레미 송' 노래를 듣고 핸드벨로 합주 - 유율 타악기(핸드벨)와 무율 타악기로 팀을 나누어 타악기 합주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레미 송'은 멜로디 전개가 순차적으로 상향 진행됨에 따라 아동에게 안정감과 편안함을 제공해주어 음악 안에서 주어진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 단계적으로 제공되는 색깔 악보를 보며 악기연주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은 결손가정 아동에게 성취감과 만족감을 경험하게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9	상호교류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듬 밴드 만들기 - 리듬 악기를 선택하도록 하고 각자 정한 악기 탐색하기 - 연주법 익히고 자신의 파트 정하기 -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세요' 노래에 맞춰 리듬밴드 합주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기 선택 시 자신이 하고 싶은 악기를 이야기 하고 나눔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반영함과 동시에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서로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도록 한다. - 각자 다른 악기를 사용하여 합주하는 경험은 그룹원들과 음악적으로 소통하게 하여 상호교류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10	자기조절 능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밴드 합주를 위한 노래 만들기 - 핸드벨로 멜로디를 만든 후 함께 가사 도의하여 우리만의 곡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원이 함께 곡을 창작하며 의논하고, 곡을 완성함으로 자신과 타인의 의견을 조율하고 조절하는 계기가 된다(정현주, 김동민, 2010).

		- 리듬밴드 합주하기	- 리듬밴드 합주는 그룹원과 감정을 공유하고 소통하게 하며, 서로의 소리를 듣고 조절하며 맞춰감으로써 자신을 조절하도록 한다.
11	또래 유대감 증진	- 지난 회기에 만든 노래에 맞춰 치료사는 건반,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악기를 사용하여 밴드 합주하기	- 그룹원과 함께 만든 곡을 합주함으로 곡의 흐름을 쉽게 이해하고 보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합주가 가능하다. 또한 합주를 맞춰가는 과정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게 됨으로 또래관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중결			
12	성취감 고취	- 함께 만든 곡을 다시 연주하고 녹음하기 - 좋았던 경험 나누기	- 그룹원과 노력하고 함께 만든 결과를 만들어 냈을 때 함께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끼고 녹음된 음악을 듣고 나눔으로써 서로에 대한 감정을 공유하고 이해 할 수 있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20.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들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성별, 연령 등 일반적 사항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을 분석하였다.

둘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동질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에 대한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프로그램이 자기효능감, 또래관계 질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전점수의 차이의 영향을 통제한 후 사후 결과의 차이를 검증

하는 공변량분석(ANCOVA)의 비모수검정인 순위 공변량분석(Ranked ANCOVA)을 실시하였다. 순위 공변량분석의 절차는 각 변인에 순위변수를 생성하여 회귀분석 한 후 잔차의 차이를 일원변량분석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넷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과 사후점수에 대한 변화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분석으로 Wilcoxon 대응 쌍 부호순위(Wilcoxon Matched Pairs)검정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각 척도의 하위요인에 대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여 결과가 유의미한지를 알아보았다.

표본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n=14) 모든 통계적 분석은 비모수 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5$ 이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는 결손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실험집단 7명, 통제집단 7명으로 분류하여 타악기 합주 음악치료가 결손가정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효과적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결손가정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또래관계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에서의 타악기 합주 음악치료를 실시한 후,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동질성 검정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학년, 가족 형태, 음악교육 경험, 음악치료 경험, 센터 다닌 기간, 친한 친구 수, 상담 대상(고민을 나눌 대상)을 알아보았으며, 상담 대상은 다중응답으로 따로 나타내었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총 14명으로 그 중 남자 7명, 여자 7명으로 균등하게 분포되었다. 실험집단은 남자 3명, 여자 4명이며, 통제집단은 남자 4명, 여자 3명으로 구성되었다. 전체 학년 분포는 2학년이 가장 많았으며 3학년, 4학년의 순으로 분포되었고, 가족 형태는 두 집단 모두 편모가정이 가장 많았다. 음악교육 경험은 두 집단 모두 균등하게 분포되어있으며 음악치료 경험은 두 집단 모두 없었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 결과는 <표 IV-1>, <표 IV-2>와 같다.

<표 IV-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목	구분	빈도			백분율
		실험	통제	전체	
성별	남	3	4	7	50.0
	여	4	3	7	50.0
학년	2학년	3	3	6	42.9
	3학년	2	2	5	35.7
	4학년	1	2	3	21.4
가족 형태	편부 가정	1	2	3	21.4
	편모 가정	4	4	8	57.2
	조손 가정	2	1	3	21.4
음악교육 경험	있다	5	5	10	71.4
	없다	2	2	4	28.6
음악치료 경험	있다	0	0	0	0.0
	없다	7	7	14	100.0
센터 다닌 기간	1년 미만	2	1	3	21.4
	1년 - 2년	2	3	5	35.7
	2년 - 3년	2	2	4	28.6
	3년 - 4년	1	1	2	14.3
친한 친구 수	1명 - 2명	2	0	2	14.3
	2명 - 3명	1	0	1	7.1
	3명 - 4명	0	1	1	7.1
	5명 이상	4	6	10	71.4
	계	7	7	14	100.0

<표 IV-2> 다중응답

항목	구분	빈도			백분율	백분율 /응답
		실험	통제	전체		
상답 대상	아버지	0	1	1	7.1	4.8
	어머니	2	1	3	21.4	14.3
	형/오빠	2	0	2	14.3	9.5
	누나/언니	2	1	3	21.4	14.3
	동생	1	0	1	7.1	4.8
	선생님	3	2	5	35.7	23.8
	친구	0	4	4	28.6	19.0
	없음	1	1	2	14.3	9.5
계		11	10	21	149.9	100.0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동질성 검증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동질한 집단으로 구성되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기효능감, 또래관계 질 척도의 전체 점수와 하위요인의 사전점수에 대해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자기효능감, 또래관계 질의 전체점수와 하위요인 점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05$). 따라서 두 집단은 동질한 집단으로 볼 수 있으며 분석 결과는 <표 IV-3>과 같다.

<표 IV-3>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동질성 분석

측정치	실험집단(n=7)	통제집단(n=7)	U	Z
	평균순위(순위합)	평균순위(순위합)		
자기효능감	7.71(54.00)	7.29(51.00)	23.0	-.19
자신감	6.79(47.50)	8.21(57.50)	19.50	-.64
자기조절효능감	7.57(53.00)	7.43(52.00)	24.00	-.06
과제 난이도	9.29(65.00)	5.71(40.00)	12.00	-1.06
또래관계 질	6.36(44.50)	8.64(60.50)	16.50	-1.02
긍정적 요인	7.50(52.50)	7.50(52.50)	24.50	-.00
부정적 요인	6.07(42.50)	8.93(62.50)	14.50	-1.28

2. 자기효능감에 대한 음악치료 활동 효과

1) 자기효능감 전체점수에 대한 음악치료 활동 효과

음악치료 활동을 실시 후 자기효능감에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순위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정 결과 사전점수 차이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의 사후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 12)=17.54, p=.001$). 이에 대한 결과는 <표 IV-4>, <표 IV-5>와 같다.

<표 IV-4> 자기효능감 전체점수 순위 잔차의 평균과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실험집단	1.75	1.73	.66
통제집단	-1.75	1.37	.52
합계	.00	2.36	.63

<표 IV-5> 자기효능감에 대한 순위 공변량분석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집단-간	42.94	1	42.94	17.54**
집단-내	29.37	12	2.45	
합계	72.31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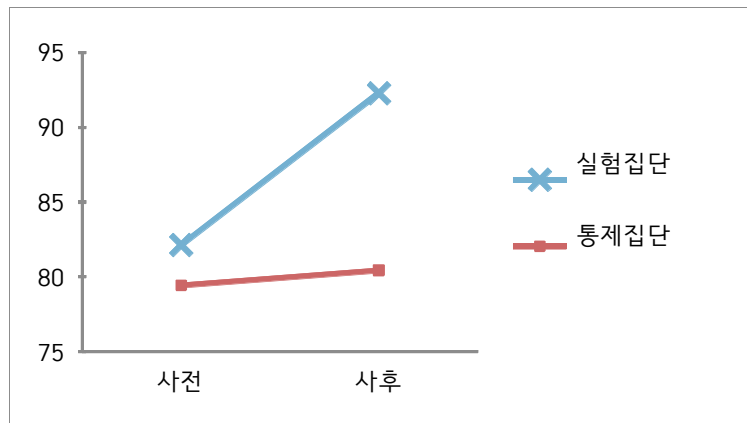
** $p < .01$

변화의 추이를 보기 위해 각 집단의 사전과 사후에 대한 Wilcoxon 대응 쌍 부호순위 검정을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은 $p=.018$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 < .05$)를 보이며 평균이 증가하였으나, 통제집단은 $p=.399$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05$). 이에 대한 결과는 <표 IV-6>, <그림 IV-1> 과 같다.

<표 IV-6> 자기효능감에 대한 Wilcoxon 대응 쌍 부호순위 검정

	사전검사	사후검사	Z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실험집단	82.14(12.48)	92.29(8.67)	-2.37*
통제집단	79.43(13.26)	80.43(13.72)	-.84

* $p < .05$



<그림 IV-1> 자기효능감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평균점수

2) 자기효능감 하위요인에 대한 음악치료 활동 효과

타악기 합주 음악치료 활동을 실시 후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에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순위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정결과 자기조절효능감($F(1, 12)=11.13, p=.006$)은 $p < .01$ 로, 과제 난이도($F(1, 12)=5.64, p=.035$)는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자신감($F(1, 12)=1.73, p=.213$)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05$). 이에 대한 결과는 <표 IV-7>, <표 IV-8>과 같다.

<표 IV-7> 자기효능감 하위요인 순위 잔차의 평균과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자신감	실험집단	.86	2.84	1.07
	통제집단	-.86	1.95	.74
	합계	.00	2.50	.67
자기조절 효능감	실험집단	1.58	1.97	.75
	통제집단	-1.58	1.56	.59
	합계	.00	2.37	.63
과제 난이도	실험집단	1.20	1.94	.73
	통제집단	-1.20	1.85	.70
	합계	.00	2.21	.59

<표 IV-8> 자기효능감 하위요인에 대한 순위 공변량분석

하위요인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자신감	집단-간	10.25	1	10.25	1.73
	집단-내	71.05	12	5.92	
	합계	81.30	13		
자기조절 효능감	집단-간	35.11	1	35.11	11.13**
	집단-내	37.87	12	3.16	
	합계	72.98	13		
과제 난이도	집단-간	20.22	1	20.22	5.64*
	집단-내	43.00	12	3.58	
	합계	63.22	13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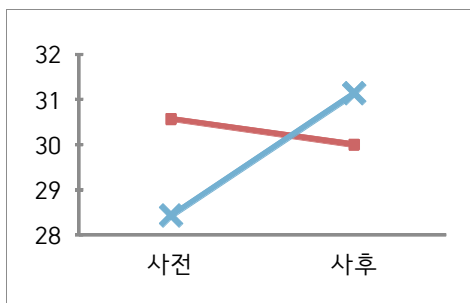
각 하위요인의 집단별 점수변화의 추이를 보기 위해 각 집단의 사전과 사후에 대한 Wilcoxon 대응 쌍 부호순위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결과 하위요인의 실험집단은 자신감 $p=.041$, 자기조절효능감 $p=.041$, 과제 난이도 $p=.027$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 < .05$)를 보이며 평균이 증가했으나 통제집단은 자신감 $p=.357$, 자기조절효능감 $p=.330$, 과제 난이도 $p=.196$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05$). 이에 대한 결과는 <표 IV-9>, <그림 IV-2>, <그림 IV-3>, <그림 IV-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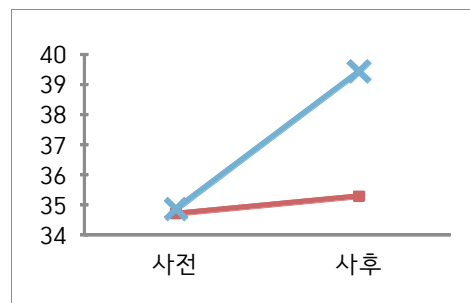
<표 IV-9> 자기효능감 하위요인 Wilcoxon 대응 쌍 부호순위 검정

하위요인	집단	사전검사	사후검사	Z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자신감	실험집단	28.43(2.76)	31.14(2.04)	-2.04 *
	통제집단	30.57(4.93)	30.00(4.76)	-.92
자기조절 효능감	실험집단	34.86(6.74)	39.43(4.08)	-2.04 *
	통제집단	34.71(6.26)	35.29(6.60)	-.97
과제 난이도	실험집단	18.86(4.34)	21.71(4.19)	-2.21 *
	통제집단	14.14(5.21)	15.14(4.06)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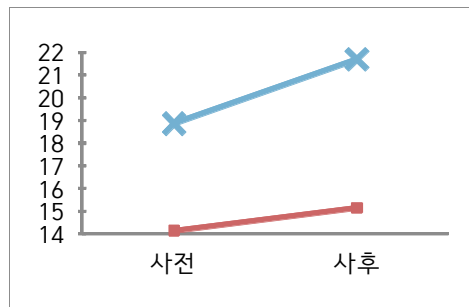
* $p < .05$



<그림 IV-2> 자신감



<그림 IV-3> 자기조절효능감



<그림 IV-4> 과제 난이도

3. 또래관계 질에 대한 음악치료 활동 효과

1) 또래관계 질 전체점수에 대한 음악치료 활동 효과

음악치료 활동을 실시 후 또래관계 질에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순위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정결과 사전점수 차이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의 사후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 12)=24.20, p =.000$). 이에 대한 결과는 <표 IV-10>, <표 IV-11>과 같다.

<표 IV-10> 또래관계 질 전체점수 순위 잔차의 평균과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실험집단	2.35	1.84	.70
통제집단	-2.35	.81	.30
합계	.00	2.79	.75

<표 IV-11> 또래관계 질에 대한 순위 공변량분석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집단-간	349.34	1	349.34	24.20***
집단-내	259.82	12	14.43	
합계	609.16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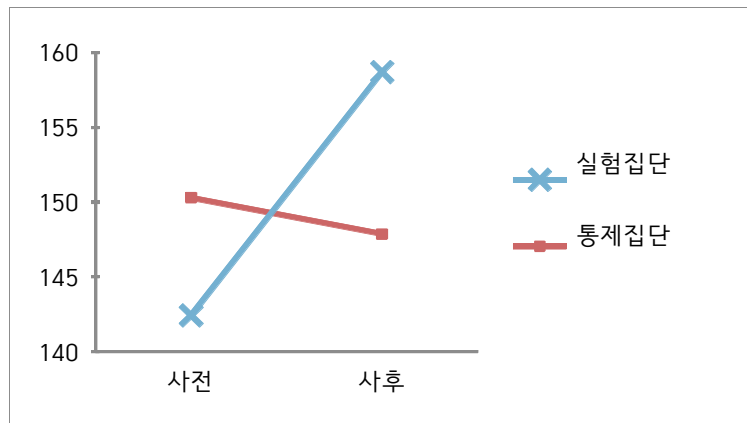
*** $p < .001$

각 집단의 점수변화 추이를 보기 위해 각 집단의 사전과 사후에 대한 Wilcoxon 대응 쌍 부호순위 검정을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은 $p=.018$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 < .05$)를 보이며 평균이 증가하였으나, 통제집단은 $p=.176$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05$). 이에 대한 결과는 <표 IV-12>, <그림 IV-5>와 같다.

<표 IV-12> 또래관계 질에 대한 Wilcoxon 대응 쌍 부호순위 검정

	사전검사	사후검사	Z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실험집단	142.43(14.07)	158.71(13.55)	-2.37*
통제집단	150.29(16.44)	147.86(15.42)	-1.35

* $p < .05$



<그림 IV-5> 또래관계 질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평균점수

2) 또래관계 질 하위요인에 대한 음악치료 활동 효과

음악치료 활동을 실시 후 또래관계 질의 하위요인에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순위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긍정적 요인($F(1, 12)=12.78, p=.004$)은 .01수준에서, 부정적 요인($F(1, 12)=5.71, p=.034$)은 .0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IV-13>, <표 IV-14>와 같다.

<표 IV-13> 또래관계 질 하위요인 순위 잔차의 평균과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긍정적 요인	실험집단	1.71	1.33	.50
	통제집단	-1.71	2.16	.82
	합계	.00	2.48	.66
부정적 요인	실험집단	1.45	2.71	1.02
	통제집단	-1.45	1.74	.66
	합계	.00	2.66	.71

<표 IV-14> 또래관계 질 하위요인에 대한 순위 공변량분석

하위요인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긍정적 요인	집단-간	41.14	1	41.14	12.78**
	집단-내	38.62	12	3.22	
	합계	79.76	13		
부정적 요인	집단-간	29.62	1	29.62	5.71*
	집단-내	62.21	12	5.18	
	합계	91.83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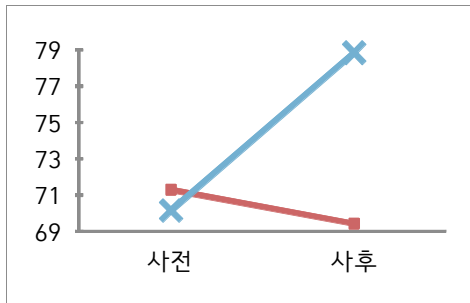
* $p < .05$, ** $p < .01$

각 하위요인에 대한 점수변화의 추이를 보기 위해 각 집단의 사전과 사후에 대한 Wilcoxon 대응 쌍 부호순위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결과 또래집단 하위요인의 실험집단은 긍정적 요인 $p=.018$, 부정적 요인 $p=.018$ 로 유의미한 차이($p < .05$)를 보이며 평균이 증가한 반면 또래관계 질의 하위요인의 통제집단은 긍정적 요인 $p=.084$, 부정적 요인 $p=.596$ 으로 두 하위요인 모두 유의미한 차이($p > .05$)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IV-15>, <그림 IV-6>, <그림 IV-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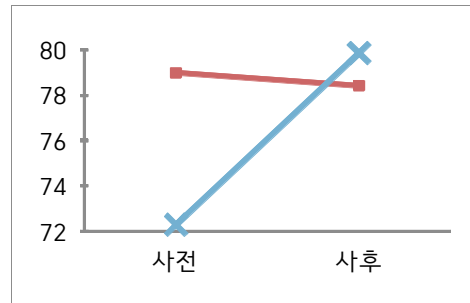
<표 IV-15> 또래관계 질 하위요인 Wilcoxon 대응 쌍 부호순위 검정

하위요인	집단	사전검사	사후검사	Z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긍정적 요인	실험집단	70.14(6.82)	78.86(4.78)	-2.37*
	통제집단	71.29(13.46)	69.43(13.00)	-1.73
부정적 요인	실험집단	72.29(9.36)	79.86(9.28)	-2.37*
	통제집단	79.00(5.83)	78.43(5.94)	-.53

* $p < .05$



<그림 IV-6> 긍정적 요인



<그림 IV-7> 부정적 요인

V. 결 론

1.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타악기 합주 음악치료가 결손가정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G구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결손가정 아동들 중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실험집단 7명, 통제집단 7명을 무선배치 하였다. 2016년 8월 22일부터 10월 5일까지 시행되었으며, 회기 당 60분씩, 주 2회로 총 12회기에 걸쳐 활동이 진행되었다. 실험 전 설문지를 통해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였고, 자기효능감 척도와 또래관계 질 척도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실험 전 후에 동일하게 실시하여 결손가정 아동의 사전과 사후 변화를 비교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0.0으로 분석하였으며,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타악기 합주 음악치료는 결손가정 아동의 자기효능감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F(1, 12)=17.54, p < .01$). 타악기 합주 음악치료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자기효능감은 유의미한 차이($p < .01$)를 보이며 증가하였고, 통제집단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05$). 이는 음악치료 활동을 통해 과제 수행, 자기조절능력, 자기표현, 또래 수용경험의 요인이 자기효능감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음악치료가 결손가정 아동의 자기효능감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한 임수진(2010)과 최애나와 강효현(2007)의 연구와 일치한다.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에서는 자기조절효능감($F(1, 12)=11.13, p < .01$), 과제 난이도($F(1, 12)=5.64, p < .05$)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자신감($F(1, 12)=1.73, p > .05$)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이는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자신감이 유의하지 않았다고 보고한 채은혜(2012)의 연구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결손가정 아동은 부모의 부재로 인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미숙하고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기간 활동을 통해 자신감영역을 향상시키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결론을 낼 수 있다. 실험집단은 자신감의 사후점수가 사전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p < .05$)를 보이며 평균이 증가한 반면, 통제집단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05$). 즉, 실험집단의 자신감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타악기 합주 음악치료는 결손가정 아동의 또래관계 질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F(1, 12)=24.20, p < .001$). 타악기 합주 음악치료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또래관계 질은 유의미한 차이($p < .001$)를 보이며 증가하였고, 통제집단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05$). 이러한 결과는 그룹원과 토의하고 합주로 소통하며 타인과 협력을 도모하여,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는 과정 속에서 유대감과 소속감을 경험하였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주빛나, 2014).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은 또래와 함께 생활하는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쉽게 친해지고, 음악치료 활동을 참여하는 그룹원간의 결속력이 증진되어 또래관계에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는 허혜진(2010)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래관계 질의 하위요인에서는 긍정적 요인($F(1, 12)=12.78, p < .01$), 부정적 요인($F(1, 12)=5.71, p < .05$)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두 집단의 사전과 사후 점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통제집단은 또래관계 질의 하위요인이 모두 유의미한 차이($p > .05$)를 보이지 않은 반면, 실험집단은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 모두 유의미한 차이($p < .05$)를 보이며 평균이 증가하였다. 긍정적 요인에 포함하는 우의, 상호친밀감, 정서적·사회적지

지, 갈등해결 또래와의 만족 등의 요인은 증가하였지만 부정적 요인에 포함하는 갈등·대립, 일반적 주도, 무시, 또래와의 불만족 등의 요인이 감소하였음을 나타낸다. 이는 악기연주를 통한 음악치료가 아동과 청소년의 또래관계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김은영(2014)와 문지연(2006)의 연구와 일치한다.

2. 제언

본 연구는 타악기 합주 음악치료가 결손가정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치료 활동은 주 2회씩 총 12회기로 다소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었기 때문에 타악기 합주 음악치료의 효과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연구 이후의 음악치료 효과에 대한 지속성은 알 수 없다. 후속연구에서는 회기를 늘려 장기간 음악치료 활동을 진행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서울의 G구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결손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각각 7명으로 구성되었다. 지역이 국한되어 있고, 표본의 크기가 작아 연구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대상자의 수와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상을 구성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한부모가정 아동, 조손가정 아동을 포함한 결손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음악치료 활동을 진행하였다. 아동의 환경에 따른 구체적인 치료적 접근을 위해 한부모가정 아동과 조손가정 아동의 대상을 구분하여 각각의 대상의 특징에 맞게 활동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음악교육이나 학교에서 진행되는 음악 수업 등 음악 경험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음악적

경험은 연구의 음악치료 활동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음악적 환경의 영향을 최대한 통제하여 연구의 효과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정숙 (2005). 집단음악활동 프로그램이 결손가정 자녀들의 정서변화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 권주희 (2012). 타악기 중심의 집단음악치료가 정신분열병 환자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미치는 영향. *임상예술치료연구*, 1(1), 1-16.
- 김경희 (2003). *아동심리학*(제 2판). 서울: 박영사.
- 김동은, 전인옥 (2014). 난타 음악활동이 유아의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음악교육연구*, 43(4), 57-75.
- 김상락 (2014). 밴드합주가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가천대학교 특수치료대학원.
- 김선정, 김근식 (2015). 집단음악활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분석: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9(2), 209-225.
- 김선하 (2009). 리듬악기합주 활동이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1(1), 40-59.
- 김성애 (2008). 집단 이야기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 김수희 (2009).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위축행동 감소를 위한 가창 프로그램 연구.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6(1), 32-51.
- 김아영 (1997). 학구적 실패에 대한 내성의 관련변인 연구. *한국교육심리학회*, 11(2), 1-19.
- 김아영 (2004). 자기효능감과 학습동기. *교육방법연구*, 16(1), 1-39.
- 김영은 (2016). 초등 고학년 위축아동의 또래 관계 향상을 위한 구조화된 그룹 타악기 연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영태 (2010). **결손가정 아동의 전형적 특성 개선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대학원.
- 김윤희 (2008). **결손가정아동의 주의집중 및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만다라와 풀라주를 이용한 집단미술치료 효과**. *예술심리치료연구*, 4(2), 1-21.
- 김은아, 김정남 (2011). **놀이중심 자기표현 훈련이 한부모 가정 아동의 불안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재활심리연구*, 18(2), 134-150.
- 김은영 (2014). **치료적 밴드활동이 Williams Syndrome 청소년의 사회 기술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례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 김종인 (2005). **음악치료약기론**. 서울: 지식산업사.
- 김종인 (2008). **아동음악치료방법론**. 파주: 한국학술정보.
- 김지은 (2016). **창작 음악극을 이용한 음악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조절 및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 김진경, 유안진 (2002). **시설거주여부,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초기 청소년의 의사소통 기술과 또래관계 질**. *아동학회지*, 23(2), 121-135.
- 김해숙, 이종한 (2016). **결손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한 연구: 비결손 가정 아동과의 비교**. *통합교육과정연구*, 10(2), 23-44.
- 김혜정, 양은아 (2013). **기악합주활동 중심의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또래관계 기술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9(4), 75-96.
- 김호정, 김나영 (2009). **무용/동작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심리치료: 다학제적 접근*, 9(2), 127-158.
- 김희성, 나용선, 김충식, 박경아, 곽미영 (2009). **건강가정론**. 파주: 양서원.
- 김희정, 정다운 (2011). **방과후 자아존중감 프로그램 참여가 저소득층 아동의**

- 자아존중감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생태유아교육연구*, 10(4), 71-90.
- 문지연 (2006). 음악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 박명숙 (1996). 결손가정 아동의 정서교육에 관한 고찰: 이혼 가정을 중심으로. *인문과학논집*, 2(1), 283-310.
- 박완주 (2007). 문학치료적 중재가 결손가정아동의 자아탄력성과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 백수정, 강경선 (2016). 집단 창작 중심 음악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12(3), 87-10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16). *한부모가족지원법*. <http://www.law.go.kr>.
- 보건복지부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부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부 (2015). *아동정책기본계획*. <http://www.mohw.go.kr>.
- 서아름, 이드보라 (2012). 음악감상과 콜라주를 이용한 예술치료가 결손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8(4), 51-71.
- 서원경 (2014).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프로그램 만족도 및 또래관계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모교육연구*, 11(1), 5-34.
- 성자영 (2011). 게슈탈트 집단미술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한국예술치료학회*, 11(2), 45-71.
- 성정현, 여지영, 우국희, 최승희, 임세희 (2014). *가족복지론*. 파주: 양서원.
- 성혜영, 김광웅, 이재연, 서영숙, 이소희 (2002). *아동심리학(제 2판)*.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출판국.
- 손미나 (2015).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음악치료가 결손가정 아동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 송영혜 (2012). **또래관계**. 서울: 시그마프레스.
- 신혜령, 정재훈, 김성경 (2006). **한부모가족지원법안에 관한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안지숙 (2008). **집단음악치료활동이 결손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 양근수 (2008). **타악기를 활용한 유아놀이 프로그램**. 서울: 엠-에드.
- 양은정 (2007). **치료적 유희 타악기 합주가 가출청소년의 사회기술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 여성가족부 (2011). **2010년 조손가족 실태조사**. <http://www.mogef.go.kr>.
- 여성가족부 (2016). **2015년 전국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http://www.mogef.go.kr>.
- 염상석 (2012). **난타활동이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증진과 스트레스 해소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31, 31-58.
- 유안진 (2000). **아동발달의 이해(제 2판)**. 서울: 문음사.
- 유지아 (2016). **타악기 연주 중심의 음악치료가 재한 몽골 중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불안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 육순진, 박현건 (2002). **유아 아동 음악교육: 리듬 합주를 중심으로**. 파주: 양서원.
- 이경진, 김수지 (2011). **타악기 연주 프로그램이 시설노인의 우울감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5), 153-163.
- 이나경 (2011). **여성 한부모 가족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치료적 음악 만들기 사례연구**.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8(2), 21-46.
- 이민화 (2014). **노래중심 집단음악치료 활동이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표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

- 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 이유미, 김정희, 김동원 (2009). 인지적 대인관계 문제해결 훈련이 결손가정 초등학생의 문제해결력, 자기효능감 및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 연구**, 10(4), 2303-2319.
- 이은경 (2004). 결손가정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에 대한 연구: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양육자의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이화교육논총**, 14(1), 79-93.
- 이은경 (2008). 전통타악기를 활용한 즉흥연주가 청각장애 대학생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5(2), 41-69.
- 이은수 (2009). 결손가정 아동들이 보육시설에서 느끼는 또래 갈등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유아교육연구**, 5(1), 67-83.
- 이은혜 (2016). 노래 중심 음악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 이재인, 김춘경, 한은수 (2014). 초등학생의 부모애착, 또래애착, 자기효능감, 학교적응 간의 관계 구조분석. **초등교육연구**, 27(4), 345-367.
- 이현주 (2010). 결손가정 아동의 정신건강 구조모형.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대학원.
- 임수진 (2010). 결손가정 아동의 자기효능감을 위한 집단음악치료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 장빛나 (2009). 타악기 중심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유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 장용희, 한정현, 이재신 (2014). 초등학생의 교사에착, 또래애착, 자기격려,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간의 구조적 관계. **디지털융복합연구**, 12(10), 515-523.
- 정옥분 (2013). **아동발달의 이해**(제 2판). 서울: 학지사.
- 정진희, 정규진, 최애나 (2015). 톤차임을 활용한 집단음악치료가 결손가정 아

- 동의 주의집중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11(4), 213-233.
- 정현주 (2011). *인간행동과 음악*. 서울: 학지사.
- 정현주 (2015). *음악치료학의 이해와 적용*(제 2판).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정현주, 김동민 (2010). *음악심리치료*. 서울: 학지사.
- 조미숙 (2005). 증가하는 결손가정과 아동보호에 관한 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2(2), 185-204.
- 조흥식, 김인숙, 김혜란, 김혜련, 신은주 (2010). *가족복지학*. 서울: 학지사.
- 조희금 외. (2005). *건강가정론*. 서울: 신정.
- 주빛나 (2014). *악기연주 중심 음악치료가 시설보호아동의 또래 유대감 증진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차정은 (1996).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심리연구*, 34, 19-31.
- 채은혜 (2012). *집단음악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정서지능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 최경환, 박창태 (2001). *타악기 백과사전*. 경기: 성연사.
- 최병철 (2006). *음악치료학*(제 2판). 서울: 학지사.
- 최석란 (2001). *어린이의 또래관계*. 서울: 다음세대.
- 최애나, 강효현 (2007). 통합예술치료가 결손가정 아동의 자기효능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연구*, 11(2), 71-87.
- 통계청 (2015). *총인구조사*.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 통계청 (2015). *추계인구·가구 조사*.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 한혜진 (2002). *자기주장훈련이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허선, 문현미 (2013). 난타북을 이용한 난타활동이 지적장애 학생의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저널*, 14(3), 281-305.
- 허혜진 (2010).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또래관계 기술 증진을 위한 창작 음악극 프로그램 효과 연구.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7(1), 43-69.
- 홍순화 (2011). 악기연주중심의 집단음악활동이 대안학교 중학생의 학교적응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 황은영, 정은주, 이유진 (2014). *음악심리치료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andura, A. (2004). *Self-efficacy in changing societies*. 윤운성, 정정옥, 가정식(공역).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의 자기효능감*. 서울: 학지사(원서출판 1995).
- Borczon, R. M. (2004). *Music psychotherapy: Group vignettes*. 이정실(역). *집단음악치료*. 서울: 학지사(원서출판 1997).
- Bruscia, K. E. (2006). *The dynamics of music psychotherapy*. 최병철, 김영신(공역). *음악 심리치료의 역동성*. 서울: 학지사(원서출판 1998).
- Grocke, D., & Wigram, T. (2011). *Receptive methods in music therapy: Techniques and clinical applications for music therapy clinicians, educators and students*. 문소영, 이은진(공역). *음악치료수용기법*. 서울: 학지사(원서출판 2007).
- Hartup, W. (1983). *Peer relation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New York: Wiley.
- Richman, N., Sreavenson, J., & Graham, P. J.(1982). *Pre-school to school: A behavior study*. London: Academy Press.
- Ryan, N. E. (1996). Family dysfunction, parental attachment, and career search self-efficacy among community college student. *Journal of*

- Counseling Psychology*, 43(1), 84-89.
- Sanders, P., & Mayers, S. (1995) *Divorce & separation*. London: gloucester Press.
- Schwarzer, R., Bassler, J., Kwiatek, P., Schroder, K., & Zhang, J. (1997). The assessment of optimistic self-beliefs: Comparison of the German, Spanish, and Chinese versions of the General Self-Efficacy Scale. *Applied Psychology*, 46(1), 69-88.
- Shaffer, D. R. (2008).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송길연, 이지연 (공역). **사회성격발달**. 서울: 시그마프레스(원서출판 2005).
- Thomas, M. E. (2005). *The impact of an introductory college-level biology class on biology self-efficacy and attitude towards sci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ern Colorado.
- Wanda, B. L. (2009). *Pediatric music therapy*. 최병철, 박소연, 황은영(공역). **아동음악치료**. 서울: 학지사(원서출판 2002).
- Hill, N., & Hull, A. (2015). *Drum circle facilitators' handbook*. 송명훈(역). **드럼서클 퍼실리테이터 핸드북**. 서울: 한국드럼서클연구회(원서출판 2013).

ABSTRACT

The Effects of Percussion Ensemble Music Therapy on Self-Efficacy and Peer Relationship of Children from Broken Families.

KIM, Ji Hyun
Department of Music Therap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percussion ensemble music therapy on self-efficacy and peer relationship of children from broken families. 14 children from broken families in a local child care center located in G-gu Seoul-si were selected for the study subjects and they were randomly assigned into an experiment group and a control group.

The percussion ensemble music therapy program was provided from August 22 to October 5, 2016, and total 12 sessions were conducted for twice a week for 60 minutes per session. The activities included percussion improvisation, drum circles, Nanta, and rhythm band.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 of music therapy program, it was measured

using pre-, and post-test of self-efficacy scale and the peer relationship quality scale from experiment group and control group.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thorough SPSS 20.0, a statistics program and utilized through frequency analysis, Mann-Whitney U test, Ranked ANVOCA, and Wilcoxon Matched pairs test.

As the results, the control group did not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p > .05$) pre- and post-test in self-efficiency or peer relationship, while the experimental group did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elf-efficacy ($F(1, 12)=17.54, p < .01$), peer relationship quality ($F(1, 12)=24.20, p < .001$), confirming positive effects of the percussion ensemble music therapy. The research result signifies that the percussion ensemble music therapy is expected to be an effective therapeutic intervention method to improve self-efficacy and peer relationship of children from broken families.

부 록

<부록 1> 음악치료 활동 참여 동의서

<부록 2> 일반적 특성 설문지

<부록 3> 자기효능감 척도

<부록 4> 또래관계 질 척도

<부록 2> 일반적 특성 설문지

<일반적 특성 설문지>

()학년 이름() 성별(남 / 여)

* 자신에게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선택 하거나 빈칸에 기입해 주세요.

1. 음악과 관련하여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예 ②아니요

2. 음악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예 ②아니요

3. 어떤 노래를 좋아하나요? (ex. 노래제목)

()

4. 좋아하는 가수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 가수를 좋아하나요?

()

5. 몇 살 때부터 지역아동센터에 다녔나요?

()

6. 지역아동센터 친구들과 더 친한가요? 아니면 학교 친구가 더 친한가요?

①지역아동센터 친구 ②학교 친구

<부록 3> 자기효능감 척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설문지는 평소에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맞거나 틀린 답이 없으며, 성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읽어보시고 문항내용에서 나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표시하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답해준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으므로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맞거나 틀린 답이 없으므로 각 문항을 신중하게 읽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V 표시 해주세요. 체크한 내용은 **비밀보장** 됩니다.

번호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는 우울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일을 순서를 정해 조직적으로 처리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큰 문제가 생기면 불안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위험한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6	일은 쉬운 것일수록 좋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어떤 일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해 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판단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만일 일을 내가 선택한다면 나는 어려운 일보다는 쉬운 일을 선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위협적이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스트레스를 필요이상으로 많이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11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어떤 문제에 대한 나의 판단과 생각은 대체로 정확하다.	①	②	③	④	⑤
13	주변 친구들이 나보다 모든 일에서 뛰어난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항상 목표를 세우고 목표에 따라서 일의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좀 실수를 하더라도 나는 어려운 일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을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주어진 일을 하기 위해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어렵거나 도전적인 일에 매달리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계획을 잘 짤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일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되면 빨리 바로잡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아주 쉬운 일보다는 내가 도전할 수 있는 어려운 일이 더 좋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무슨 일이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어떤 일이 처음에 잘 안되더라도 나는 될 때까지 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부록 4> 또래관계 질 척도

- 맞거나 틀린 답이 없으므로 각 문항을 신중하게 읽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V 표시 해주세요. 체크한 내용은 **비밀보장** 됩니다.

번호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①	②	③	④	⑤
2	친구들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라고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친구들과 의견이 다를 때, 말다툼을 하거나 싸운다.	①	②	③	④	⑤
5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고 잘 따른다.	①	②	③	④	⑤
6	친구들은 내가 말할 때, 비웃는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친구들 말에 따르지 않으면 친구들은 나에게 화를 낸다.	①	②	③	④	⑤
8	친구들은 속상하고 힘들 때, 나에게 와서 털어놓는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관계가 지속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친구들은 내가 곤란한 일을 겪을 때, 나를 보호하고 지켜준다.	①	②	③	④	⑤
11	내가 의견을 제시했을 때, 친구들은 나를 무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친구들과 갈등이 있을 때, 대화를 통해 금방 해결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친구들과 생각이 통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친구들은 나를 잘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나와 다른 부류의 아이들과는 친해질 생각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친구와 싸우면 화해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7	내가 해선 안 될 일을 했을 때, 친구들은 나를 꾸짖는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친구들이 힘들 때, 돌봐주고 위로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나보다 친구들의 주장이 더 세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재미있게 논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친구들과 자주 싸운다.	①	②	③	④	⑤
22	내가 힘들 때, 친구들은 나를 도와주고 격려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친구들과 심하게 다투면 절교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친구들과 무엇을 할지 결정할 때, 내가 일방적으로 의견을 낸다.	①	②	③	④	⑤
25	친구들은 내가 하는 일에 찬성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26	친구들은 내가 모르는 상황을 이해하도록 친절히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친구들에게 내 이야기를 잘 한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친구들과 함께 활동할 때, 행복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친구가 내 뜻과 다르게 행동하면, 화가 나서 짜증낸다.	①	②	③	④	⑤
30	나는 친구들과 있을 때 더 재미있고 신난다.	①	②	③	④	⑤
31	나는 친구들과 의견이 엇갈리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우긴다.	①	②	③	④	⑤
32	친구들은 나에게 대해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3	나는 친구들이 슬퍼할 때 나와는 상관없다고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34	나는 친구들과 의견 충돌이 잦다.	①	②	③	④	⑤
35	나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내 비밀을 친구에게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36	친구들은 내가 여러 가지 일을 잘한다고 인정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37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38	나는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 기분이 나쁘면 대화를 중단한다.	①	②	③	④	⑤
39	나와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다.	①	②	③	④	⑤
40	나는 친구들이 결정한대로 묵묵히 따른다.	①	②	③	④	⑤